

습도 높은 '광프리카' 시민 불쾌지수 최고

광주 기온 대구보다 낮지만 습도 높아 체감기온 더 올라 장마 끝나자 복병 태풍에 고온 다습한 날씨 지속 열대야·폭염일수만 13일... '7말8초' 휴가 망쳐

"더위도 더워지만 습기가 엄청나서 너무 불쾌해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갖는 여름 휴간데, 날씨 때문에 망쳐버렸어요."
광주·전남 시민들의 '불쾌 지수'가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장마가 끝나자 복병 태풍이 북상하며 고온 다습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휴가 극성수기로 꺾히는 7월 말부터 8월 초, 이른바 '7말 8초'를 맞았으나 광주·전남에는 최악의 날씨가 펼쳐졌다. 주말이었던 지난 7월 23~24일에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30~31일에는 제5호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전역에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비가 그치자 이번에는 우중충하고 습한 '가마솥 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다시 "더워서 못 살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재영(29·북구 신안동)씨는 "요즘은 햇볕이 뜨거운 것도 아닌데 습도가 높아서인지 땀이 절로 흐른다. 에어컨으로도 충분히 없어서 개인 선풍기를 두 대나 샀다"며 "중일 흐르는 땀을 닦느라 업무에 집중도 안되는데 출장이라도 나갔다 오려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5-6호 2개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소멸하면서 따뜻한 수증기를 광주·전남 지역에 밀어넣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2일 현재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최근 광주는 '광프리카' (광주+아프리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더운 지역의 대표 주자로는 대구시가 꼽혔지만 최근 들어 이 법적마저 깨지고 있다. 더위의 기준에 '습도'가 포함되면서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낮 최고기온'에서 '낮 최고 체감기온'으로 변경했다. 단순히 기온만 비교할 게 아니라 습도까지 종합해 폭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습도(상대습도)는 공기 중 포함된 수증기 비율을 말한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을수록 땀이 잘 증발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지고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습도가 높으면 여름철 체감기온도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50%의 습도까지는 기온과 체감기온이 동일하며

이후 습도가 10%씩 높아질수록 체감기온이 약 1도 상승 또는 하강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광주의 평균 기온 자체는 대구보다 낮지만 평균 습도는 10%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6~7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평균 27.9~30.0도를 기록해 29.7~32.4도를 기록한 대구보다는 다소 낮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의 평균 습도는 83~87%를 기록해 광주의 체감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도 가량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대구의 평균 습도는 71~77%에 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풍이 주로 부는 여름철에는 호남지역이 영남지역에 비해 습한 경향이 있다. 영남지역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산지를 넘으며 다소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호남지역은 산

지가 적어 습한 공기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 일수'는 13일을 기록했다. 습도까지 감안한 체감기온이 33도를 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17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도 13일째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연속 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저기압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높은 습도가 유지되고, 최고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겠다"며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유아·노약자·만성질환자는 건강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쿨링포그로 더위 식히는 시민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사 앞에 설치된 쿨링포그에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 학동 참사' 없도록 건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개정 건축물관리법 4일 시행

정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국도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인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시 예외만 허가를 받아 했던 해체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율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작성자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해체계획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가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단도 강화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선 8기 정책 키워드 찾기

광주 복구, SNS 이벤트

광주시 복구가 오는 7일까지 '민선 8기 정책 키워드 찾기'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복구는 민선 8기 국정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복구 대표 SNS 영향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일 밝혔다.

'돌보기 군! 정책 keyword를 찾아줘'라는 이벤트 명과 함께 민선 8기 핵심공약 6개 분야가 문제로 등장한다.

SNS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 및 페이스북 등 복구 SNS와 친구 맺기를 한 후 주어진 그림 속 민선 8기 복구 정책 키워드를 찾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폼에 정답을 순서대로 제출하면 된다.

정답 참여자 중 주위위 100명에게는 모바일 주유권 등 소정의 경품이 주어진다. 복구 SNS 채널을 친구추가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복구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교부 "미쓰비시 현금화 결정되면 일본이 보복할 것"

대법원에 '강제동원' 의견서 내고 광주시민모임 찾아 언급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본이 거기에(대응해) 보복을 할 것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2일 공개됐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 등 외교부 당국자 3명은 지난달 28일 광주 시민모임을 찾아와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익 관련 사안에 참고인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민사소송 규칙(134조의 2)에 근거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특별 현금화명령 관련 민관협의회를 꾸려 일본과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현금화"라는 것은 일본기업 자산이 실제로 넘어가는(강제 매각되는) 상황을 의미하

는 거다. 넘어가게 되면 일본이 거기에(대응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2018년 11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손해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9년 (일본의) 경제조치가 들어갔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떠난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시민모임을 찾아 '의견서' 제출 사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시민모임은 '전범기업 사

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광주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소송을 대리하는 단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모임은 이 국장 등 외교부 당국자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이유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또다른 '국가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